

니다. 술을 좋아하시던 술을 애끼시던 아버지! 餞別의 盞이 되고만 이 푸
르기만한 이 한 盞에 가득히 술을 따르시기 爲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술
을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아버님이 쓰시던 벽장속에서 까
맣게 먼지 앉은 『松竹梅』 한 瓶을 찾았습니다. 生前에 아끼시어 秘藏해
두신 淸酒였읍니다. 卽슬리고 엷은 梧桐의 箱子 그 속의 고운 高麗象嵌
의 푸른 盞, 노르끼리한 錦貝色의 『松竹梅』 한 瓶... 먼지속의 이들과
가버리신 아버지 사이에 罪스러운 調和를 느낍니다. 벌써 봄이 길었으
니 來日은 世上없어도 손수 가꾸시던 앞마당의 가득찬 봄기운을 내려
다 보시며 미소지우실 아버님의 几筵앞에 이 작은 푸른 盞에 『松竹梅』 한
잔을 가득 넘치게 올려야겠습니다.

一九六二年 三月 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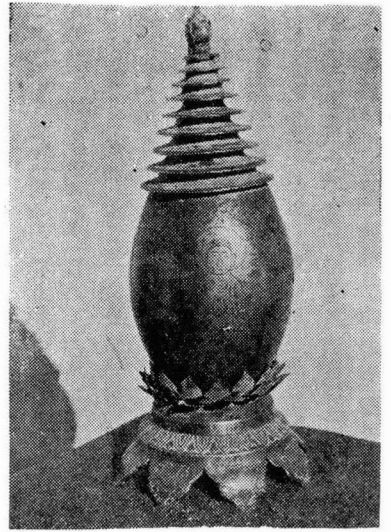
高麗在銘 舍利塔

黃 壽 永



高麗의 金屬工藝가 낳은 梵鐘 香奩 金鼓等 佛器以外에 信仰對象인 舍
利를 奉安하였던 舍
利藏置具가 있다.
이 곳에 紹介하는 一
例①는 全高 二四・
五cm의 小塔形이며
發見經緯에 關하여
서는 아무것도 傳하
지 않으나 佛舍利 또
는 高僧大德의 遺骨
을 奉安하기 위하여
經營된 石塔 또는 石

浮屠같은 곳에서 日帝時에 出世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發見當時에는
이 舍利塔을 藏置하였던 金屬 또는 陶磁의 容器나 一括遺物로서 다른 莊
嚴具같은 것이 있었을 것이나 現存하는 것은 이 塔뿐이다. 그러나 多幸
이도 塔內에는 舍利容器와 그 藏置가 原形대로 保存되었었고 또 그 곳에 銘
文이 있어 造成年代와 關係人名을 알 수 있는 點에서 한층 貴重하다. 그
形式이 内外의 兩器로 區分되므로 그에 따라 說明하겠다.
(A) 舍利塔... 蓮花臺座와 塔身相輪이 모두 圓을 基型으로 삼아 別個
各一로 造成되었었다. 臺座는 八個의 卷脚을 달았으며 그 위에는 陽刻된 覆
蓮이 둘러있고 다시 上面外緣에는 單瓣으로 오려낸 仰蓮을 三重으로 附
着시킨 간단한 構造이다. 塔身은 細長의 卵形으로서 內空인데 上下兩端
이 좁아 들면서 水平으로 截頭되어 위로는 相輪이 만들어졌다. 塔身을
들어서 立佛 四驅가 있고 그 間地는 瓔珞文으로서 區劃하였는데 모두 細線
陰刻되어 있다. 이 같은 手法은 既出의 類品에서도 볼 수 있는 바인데 四
方佛의 配置로 解釋된다. 佛形은 頭光이 있는 螺髮通肩의 正面像으로서
모두 合掌하였었다. 相輪은 圓板形의 九輪이 上部를 向하여 遞減되었고 頂
上에는 蓮蕾形의 寶珠가 連珠紋座에 놓여 있는데 이것 또한 內空이다.
(B) 舍利容器... 이것은 外護의 圓形容器와 八角塔形 舍利器로 區分別
造 되어 있다. 前者는 徑 四cm 高 四・二cm의 小圓筒으로서 上部에 圓蓋
가 있는 바 圓筒周圍에는 銘文이 있고 圓蓋의 中央에는 蓮蕾紐가 圓座위
에 만들어졌다. 八角圓堂型의 舍利容器는 銀製로서 高가 三・五cm에 不
過한데 臺座에서 分離된다. 臺座는 八脚위에 臺盤形이 있어 이 곳에서 八
角塔身의 下緣과 서로 맞아서 엮이게 되었는데 이 塔身下部는 二重으로
만들어졌다. 塔身은 無紋內空인데 그 위에 過大한 八角屋蓋가 놓여 있다.
屋蓋表面은 上下 二重으로서 斜線의 刻文이 있고 隅棟이 表現되었으며
頂上에는 大小의 寶珠가 三重으로 놓여 있다. 이 八角小塔內部에 舍利가
奉安되었던 것으로서 綠色의 鑲物片이 남아 있다. 藏置의 順序로서 이
八角容器를 圓筒內에 安置하고 그 上面을 圓蓋로서 密閉하였던 것이며 이
들을 다시 塔身이 包藏하여 蓮花臺上에 奉安하였으므로 舍利는 合計 三重
을 이루는 藏置具內部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는 바이다.



(二)

銘文은 上記한 바와 같이 圓筒器外周를 돌아서 縱書로 十行 二十三字가 다음과 같이 陰刻되어 있다. (字大는 約一cm) 至大三年 五月 造人 李奇 施主 宋以道 元永 老心 先庵 居善 至大는 元武帝의 年號로서 그 三年은 高麗 忠宣王 二年 庚戌 西紀 一三一〇年에 該當한다. 造人의 工匠을 뜻하는 것이라 하면 李奇라는 人名을 알 수 있고 施主로서 僧俗의 五人을 들고 있다.

以上 内外의 舍利藏置具는 八角塔形의 小容器와 細長한 卵形의 塔身이 銀製이나 그 外部分은 모두 青銅의 打製로서 小容器外의 全面을 鍍金하였는데 아직도 그 殘痕이 보이며 青銅製에는 곳곳에 青錆가 끼어있고 銀製는 灰黑色으로 變色되어 있다. 塔形이 高峻하며 특히 塔身이 細長함은 時代에 따르는 特異點이라 할 것이나 이樣式은 그대로 元代의 喇嘛塔形을 模한 것으로서 高麗下代에 造成된 一例임은 明白하다. 이 같은 遺例로서는 美國 Boston 博物館所藏品

이나 金剛山 月出峰出土品 等^②을 들어야 할 것이나 이들은 그 年代가 十四世紀後半으로 推定되므로 此品보다도 後代의 것이다. 더욱이 此品에는 銘文이 있어 年代를 確定할 수 있는 것은 此種類品의 一規準作을 삼을 수 있을 것이며 同時에 高麗金屬工藝의 確實한 一資料가 될 수 있다. 비록 關係知見을 喪失하였으나 完存하는 内部容器는 그 藏置의 手法과 더불어 注目할 만하다. 이 같은 金屬舍利塔의 樣式은 麗末鮮初부터 流行하는 石造浮屠의 覆鉢形 乃至 鍾形의 그것과 서로 關聯을 갖고 있는 點에서 더욱 그러하다.

註

① 月灘朴鍾和先生께서 解放後에 入手하시어 所藏하고 있다.

② 本誌前號(三)의 一 通卷十八、一九六二年一月)의 拙稿「高麗金銅舍利塔과 靑瓷壺」參照

(後記) 別號四、五年前의 일이다. 그 當時 筆者는 高麗舍利藏置具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어서 潤松先生께 此種類品에 關하여 問議한 바 있었다. 그때 先生께서는 所藏한 것은 없으나 日帝時 釜山의 日人이 喇嘛塔系의 類品을 入手한 事實을 들은 바 있다고 하시었다. 그런일이 있는지 얼마 아니하여서 先生께서는 새로운 在銘의 一例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形態를 손수 펜으로 그려서 筆者에게 手交하여 주신 바 있었다. 그것은 銘文과 더불어 二重封筒위에 그린 것이다. (圖版) 그 直後 筆者는 先生을 모시고 朴鍾和先生宅을 訪問하여 現品을 보고 驚喜한 바 있었는데 再調와 撮影을 다시 先生께 말씀드린 바도 있었다. 先生께서 棄世하신 直後 이 遺品과 先生의 厚念이 다시 回想되었다. 이곳에 실은 此品이 先生의 敎示로서 비로서 注目되었고 이제 先生을 追慕하는 因緣을 삼게 됨은 感慨 깊은 바이다. 끝으로 이 貴重品의 調査와 發表를 承諾하여 주신 月灘先生께 感謝 드리는 바이다. (三月 八日 日本東京)

驪州 欣岩里 打製石器遺蹟

金 元 龍

驪州附近에서 櫛文土器가 나온다는 所聞은 오래前부터 國立博物館의